



정리 | 원 미 진

지난 9월 1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양돈업계 관계자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대한양돈협회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한미 FTA 영향과 한국 양돈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용역과 ‘2005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한미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조사한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한미 FTA 체결시 한국 양돈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 FTA 체결 후 멕시코의 양돈산업

은 도약기, 구축기 그리고 NAFTA와 맞물려 구조 조정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높은 생산비와 낮은 생산 효율성으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NAFTA 체결 후, 멕시코가 겪었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을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높은 생산 효율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가격경쟁에서 우위에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 후 우리나라 돼지고기 시장을 쉽게 잠식할 수도 있다. 관세철폐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양돈산업의 생산액감소 추정결과, 최대 4,496억원의 양돈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연간 평균 3,311억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돼지고기와 쇠고기 모두 무관세로 수입되는 경우 최소 8,243억원에서 최대 1조 869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가능하며, 연평균 9,556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추정하였다.

따라서 FTA 협상에 따른 협상전략으로는 민감품목 지정, 장기에 걸친 관세 감축, 시장접근 제약 강화, 위생·검역장치 강화로 나타났으며, 국내 대응전략으로는 농지법 개선, 환경친화 및 안전관리 강화 제품 육성, 분뇨처리 전문화, 폐사율 하락을 위한 보조금 정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부보조, 생산구조 개편 조정을 촉진하는 정책, 유통 개선, 고품질 브랜드 육성, 수출시장 확보, 위험최소화 방안 모색 등으로 나타났다.

양돈협회가 실시하고 서울대학교 농업정보체계 연구실이 분석한 2005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는 서울대 최영찬 교수가 담당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00두 이상의 전국 5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9.6세였고, 해를 거듭할수록 노령층의 구성비율이 높아지며, 조사대상자의 80.2%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어 타 농업 분야에 비해 고학력자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농가의 89.1%가 번식부터 비육까지 일괄경영하고 있으며, 평균 사육두수는 1,995두이고, 1,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들이 증가추세로 전업화되어 가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평균 돈사면적은 950.1평이며, 부부경영이 32.2%로 가장 높고, 농장성적을 직접 관리하거나 파악하는 농가가 89.9%를 차지하지만 전산으로 성적을 관리하는 경우는 26%에 불과하였다.

모든 두당 평균 산자두수는 10.47두, 이유두수는 9.38두, 평균 모돈 회전율은 2.23, 연간 이유두수는 19.7두를 나타냈다. 2년간 번식성적이 하락한 이유는 이유육성율 감소, 모돈회전율 감소, 산자수 감소 순으로 지적되었다. 자돈 폐사는 복당 평균 1.3마리의 자돈이 포유개시부터 이유 전까지 폐사하였고, 월평균 육성돈 폐사두수는 30.58두를 보였다. 모돈 선발은 외부 후보돈 구입 비율이 76.0%, 자가 F1 생산이 17.8%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교배

두수의 84.4%가 인공수정을 통해 교배되나 교배두수의 20% 미만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농장도 6.3%나 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농가의 66.5%가 외부 AI센터를 이용해 인공수정을 하고 있었다.

연간 총 손익은 평균 2억6천원으로 나타났다. 1,000~2,000두 규모의 농가는 평균 1억8천8백만원의 연손익을, 5,000두 이상의 사육규모를 가진 농가는 평균 7억7백만원의 연손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0.7%가 PMWS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13.1%의 농가들이 복합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질병명을 몰라 양돈장 소모성 질병 발생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 및 폐사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시기는 이유 후 자돈 사육기간 55.6%, 육성기간 25.2%, 자돈 포유기간 16.9% 순이었으며, 방역 및 가축질병 대책으로는 전체의 27.9%가 농장주의 방역의식 강화를 지적하였다.

분뇨처리 형태로 퇴비화 31.3%, 해양배출 30.7%, 액비화 17.0% 순으로 나타났고, 톤당 분뇨처리비는 평균 14,318원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화방류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해양배출 중단에 대해 농가의 대부분인 86.8%가 영향을 받는다고 답하였으며, 평균 톤당 해양배출 비용은 1만5천8백원으로 조사되었다.

양돈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65.6%가 분뇨 및 환경문제를 들어 향후 각종 양돈정책 수립시 분뇨 및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

.....

양돈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65.6%가 분뇨 및 환경문제를 들어 향후 각종 양돈정책 수립시 분뇨 및 환경문제 해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양돈산업 저해요인으로는 분뇨처리 및 환경규제 42.7%, 수입개방 21.1%, 가축질병 및 방역문제 20.7%로 응답하였다. 축산업 등록 후 우려사항으로는 66.2%가 향후 사육두수 제한 또는 돈사신축 및 증축 제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농장 HACCP에 대해서는 89.7%가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4%가 축산물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정부에 대해 40.4%는 분뇨처리 문제 해소를 건의하였고, 협회에 대해 29.5%가 양돈정책 대안기구로의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한미FTA에 대한 양돈 산업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양돈농가들이 경영실태조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각 농장의 경영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